

53

예수님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마 25:14~30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76장 (기대)

오늘 배울



1. 주님께서 나에게도 달란트를 맡기셨음을 압니다.
2.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마 25:14~18)



을 이해하기

한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 재산을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씩 맡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열심히 장사하여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겼으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불러 어떻게 장사했는지 저희와 회계했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긴 종은 그들의 충성됨으로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돈을 땅에 감추어 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큰 책망을 받고 달란트도 빼앗긴 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쫓겼습니다.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나 기회, 환경 등을 비유합니다. 주님께서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달리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일까요?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과 두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동일하게 칭찬하신 사실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적당하게 맡기실 뿐 아니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구원을 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 앞에 남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정녕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9~10)

Be hospitable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As each one has received a gift, minister it to one another, as good stewards of the manifold grace of God (1 P 4:9~10)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생각해보고 그 은사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각 달란트가 우리 시대에 어느 정도 많은 가치인지 계산하여 봅시다. (1달란트 =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 = 성인이 받는 1일 수당, 현재 약 100,000원 정도)
- 2 주인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아 장사를 해서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긴 종을 칭찬했습니다. 반면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땅에 감춰둔 종은 책망하셨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말했나요(마 25:20~27)?

| 종의 모습 | 주인의 말 |
|-------------|-------|
| 다섯 달란트 받은 종 | |
| 두 달란트 받은 종 | |
| 한 달란트 받은 종 | |

3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 봅시다.

| | |
|-----------------|--|
| 친구가 보는 내 달란트 | |
| 가족이 보는 내 달란트 | |
| 내가 생각하는 달란트 | |

4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대해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잠 22:29

의

눅 12:42

화

롬 12:11

↑

고전 4:1~2

↓

고전 15:58

↓

딤후 4:10

↓

벧전 4:10



막을 수 없는 달란트

아이작 왓츠(Isaac Watts)의 아버지는 아들 아이작이 시를 쓰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손찌검까지 해가며 아이작이 시를 쓰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작에게 시는 영혼과 같은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였기 때문에 시를 못 쓰게 하는 것은 숨을 멈추게 하는 것과 다를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왓츠의 가족들은 성경을 읽은 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이작은 생쥐가 방울목걸이를 들고 고양이에게 달려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시에 곤궁한 쥐가 있었네. 목걸이여 그의 기도를 들어 주렴!”

형제들은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으나, 아버지는 몹시 비통해 했습니다. 아이작은 곧

“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는 시를 쓰지 않으리!”

라고 읊조려 아버지를 위로하였습니다. 아이작은 어릴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생을 마칠 때까지 은혜롭고 심오한 영혼의 찬송을 작사하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웬말인가 날 위하여” (141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 (391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52장)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질문 있어요~



세례와 구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세례는 성찬식과 함께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의식(儀式) 중의 하나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세례는 헬라어로 ‘잠기다, 침수하다, 장사 지내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세례가 아닌 예수님이나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대로 머리까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浸禮)로 행해야 합니다. 이는 침례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오직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세례를 받은 자에게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증표임과 동시에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공표하는 의식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룰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식을 통해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침례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 3:27)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롬 6:11)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진리에 관계되는 말씀들을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생활관습이나 자연, 사물 등을 소재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알고자 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비유로 설명한 것으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이유가 열매를 얻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 돌아온 탕자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하루가 천 년 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는 청지기의 불의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장래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듯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는데 매우 지혜롭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 두 아들의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 종교인들의 불의와 위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말아들’은 ‘유대 종교가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기회와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들’로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회개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 크리스마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목자들이 밤에 양들을 지켰다는 기록으로 봐서 겨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나 기회, 환경 등을 비유합니다. 주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 먼저 구원을 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정리활약



다음 활동 중에서 선택하여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마인드맵 / 성경 속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 단원 내용을 활용한 전도 편지
신문 기사 / 등장 인물의 일기 / 티셔츠 디자인 / 4컷 만화 / 캘리그래피
광고 / 포스터 / 성경 퀴즈 만들기 / 낱말 퍼즐 만들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
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2~13)



♥ 나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 기도의 응답 과정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감사가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 기도의 결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나 목상이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
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2~13)



♥ **나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 **기도의 응답 과정**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감사가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 **기도의 결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나 묵상이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